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 성도의 밤 8

1998

벌채 부록 : 어린이란







8 1998

# 표지 의 내 선 이



### 표지 설명:

사는 워커(앞 표지)와 헌터 랜싱(뒤 표지)은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과 정력을 바쳐 남을 돕는 수많은 말알성도들의 분이 되고 있다. "토요일은 봉사하는 날", 10쪽 참조. 사진 촬영: 재닛 토마스

### 어린이란 표지:

아르헨티나 고도이 크루즈의 오르넬라와 아나나 라스텔리는 자신의 친구들이 교회에 관해 물어 보았을 때 이미 응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어린 선교사", 10쪽 참조. 사진 촬영: 디앤 워커

##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어린 아이의 신앙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7 에블린 페레스: 참고 기다린 수확 테리 크루시
- 14 여러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 16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 18 간음하지 말찌니라 더블유 제프리 마쉬
- 24 고마워요, 노라! 알바 스텔라 카네랄 블란돈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영"
- 30 아름다운 바하마의 개척자들 재닛 토마스
- 44 와 보라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 청소년란

- 10 토요일은 봉사하는 날 제나 날슨
- 26 질의 응답: 어떻게 우리 가정을 더욱 행복하고 영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 36 낙원: 바하마 리사 엠 그로버
- 40 승리
- 42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강화시킴
- 43 잘못된 첫인상 오마 아브라함 아흐메드 차베스

## 어린이란(별책 부록)

- 2 친구가 친구에게: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 4 함께 나누는 시간: 나의 약속 지키기 시드니 레이놀즈
- 6 이야기: 크리스의 노래 하이디 클롬브
- 8 신앙개조 짝짓기 콜라스 클레이튼
- 10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어느 어린 선교사 디앤 워커
- 12 요시아, 경전을 믿은 자 비버안 폴슨
- 14 "기만히 있거라" 짐 에이브러햄 골드럼이 레이 골드럼에게 한 이야기



10쪽 참조



40쪽 참조

36쪽 참조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판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리사도 정원희: 보이드 케이 팩커, 엘 롬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 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틴,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스, 제프리 알 홀런드, 벤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린드

고운: 제이 미 켈슨, 존 엠 매드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튼

기획과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브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마젤, 디앤 워커

편집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매리엘 마틴데일

제작 보조: 베스 데일리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캠펠

디자이너: 세리 콕

제작 부장: 제인 엠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데니즈 커비, 래드 알 피터슨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권: 제 389호, 제 35권, 제 8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86

발행일: 1998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운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화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 기관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필: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세부어, 체코어, 피지어, 길버트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1998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 소유. Printed in Korea.

August 1998 no. 8.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4.0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nd new address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물문경이 주는 힘

성도의 벗(한국어판) 1997년 6월호에 나온 "제 각기 자기가 쓰는 언어로"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제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말로 나온 물문경의 그림을 보며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동안 얻은 간증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의 성전과 교회 예배 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원들 중에는 자기 나라말로 된 물문경을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따금 의기 초침해 질 때면 저는 다른 나라에서 만난 교회 회원들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물문경에 대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간증 때문에 유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문경은 어떤 언어로 그것을 읽든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유미영  
오산 와드  
한국 수원 스테이크

세상에 주는 메시지

복음 선교사인 저는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읽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한 청년이 저와 동반자에게 다가와서는 저희가 다 읽은 리아호나를 몇 권 줄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와 권고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리아호나를 갖다 주기 위해 가면서, 그에게 어느 와드 소속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

자 자신은 교회 회원이 아니지만, 한동안 리아호나를 읽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지역 지부의 회원들이 그 책을 주어 읽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은지 물어보았고, 결국 그는 선교사 토론을 마친 뒤에 침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 개종하신 분은 예언자의 말씀이 "실생활에 훌륭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아호나를 읽고 있습니다. 리아호나의 메시지는 회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목테주마 매사 장로  
멕시코, 과달라하라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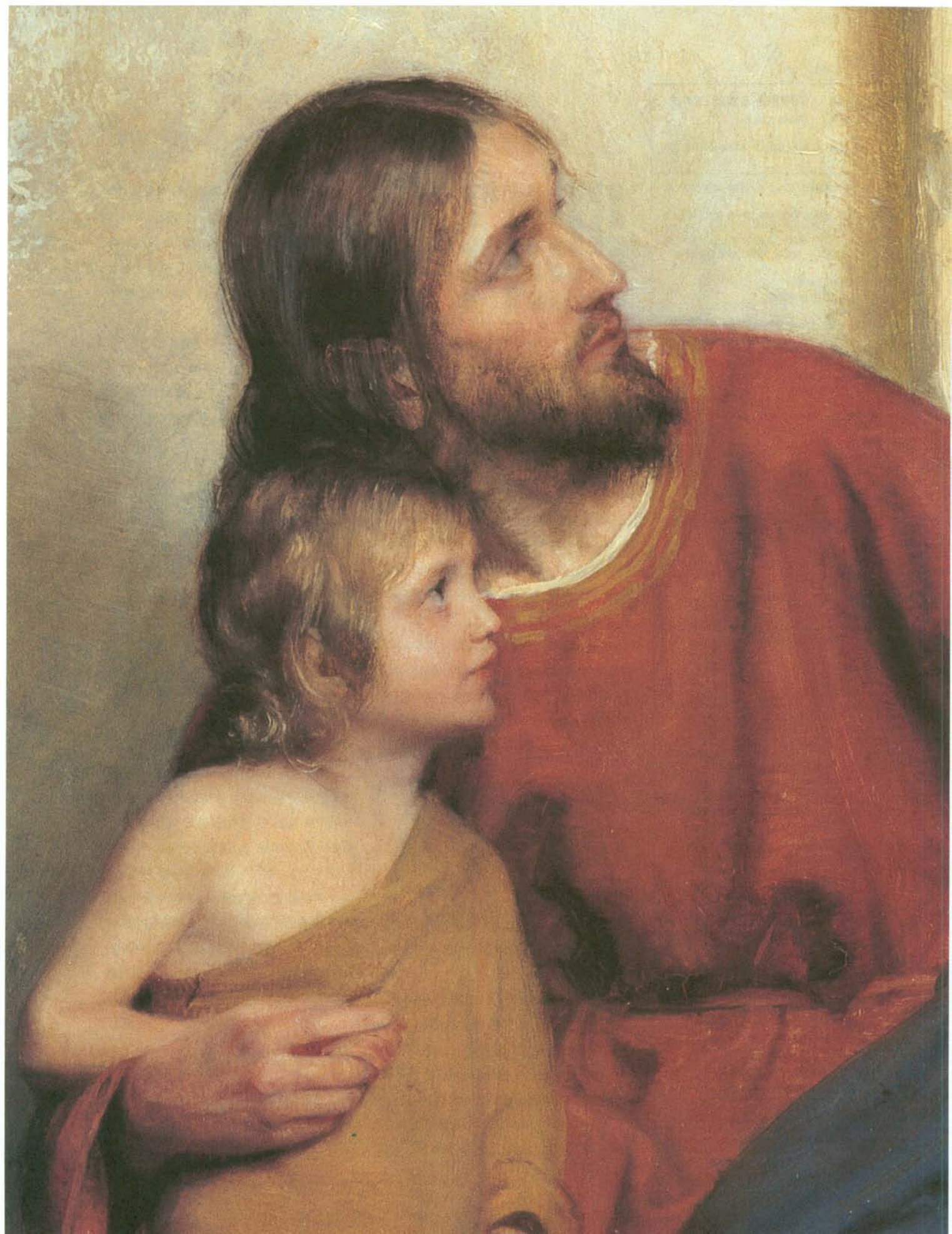


희망을 줌

저는 복음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과 함께 봉사를 합니다. 현재의 동반자와 저는 큰 열의를 갖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8월호 리아호나(스페인어판)에서 "우리로 돌아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주님이 저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즉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저희의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에이치 장로  
베네수엘라 바르셀로나 선교부







# 어린 아이의 신앙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일**년 중 연차 대회 기간만큼 영광스러운 때는 없을 것입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려고 멀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또한 태버네클도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합창단의 노래와 기도하고 말씀하는 분들의 음성이 정감어린 대화를 대신합니다. 온화한 경건함은 대기를 수놓습니다. 연차 대회는 이렇게 막이 오릅니다.

한 사람의 연사로서 친근한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보이는 신앙과 진리에 대한 헌신에 감사하다 보면 그대로 겸손해지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은 대회에 모인 회중들에게 말씀하기 위해 일어서는데 북쪽 2층 좌석에 앉아 있는 열 살 가량의 아름다운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녀에게 직접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꼬마 아가씨, 이름이 무언지, 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전 이것만은 분명히 압니다. 아가씨의 청순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망울을 보니, 오늘 하려고 준비해 온 제



메시지는

단순했고 잘 아는 말씀이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  
 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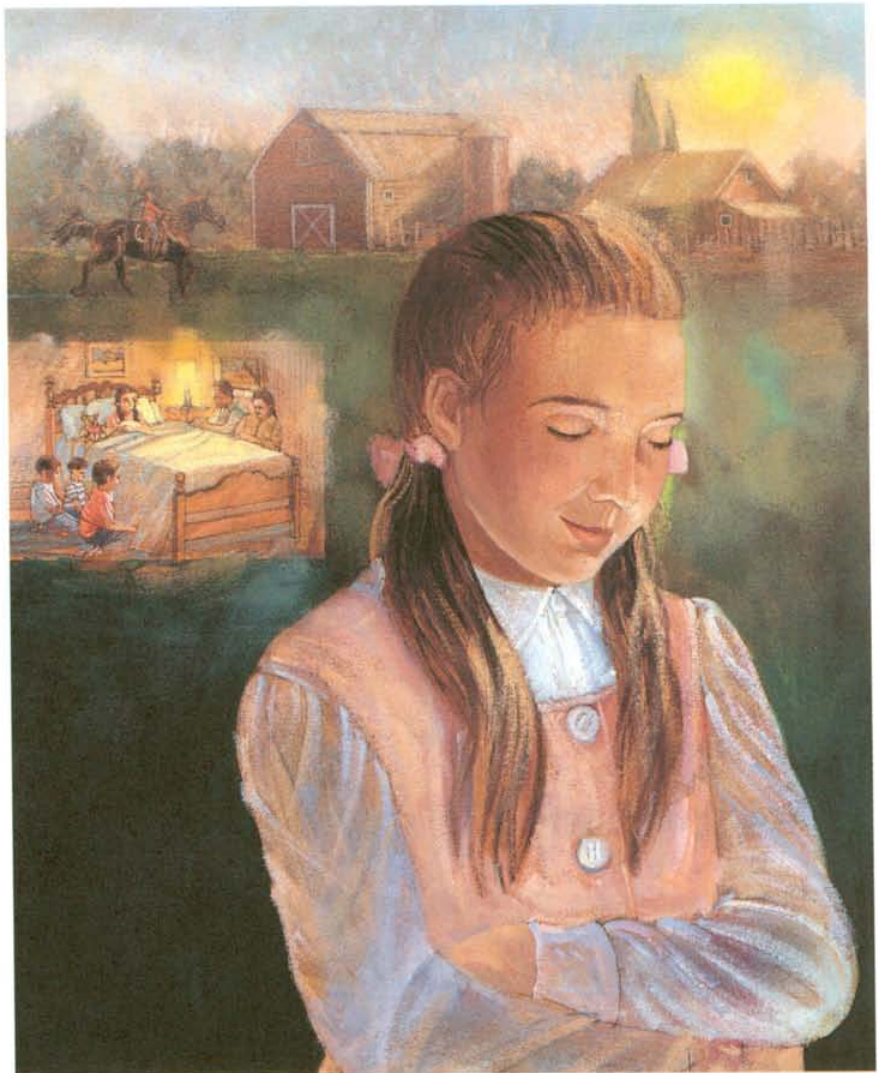
말씀은 잠시 미뤄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꼬마 아가씨에게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아가씨 나이만 했을 때 제게도 주일 학교 교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교사는 성경에서 세상의 구속주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 읽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 분은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께 모여들어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분히 여겨 이르시길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14)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은 결코 제 머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그 의미를 돌이켜보면서 그 가르침이 남긴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의 교사는 다름 아닌 주님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멀리 떨어진, 루이지애나 주 슈리브포트에서 130킬로미터쯤 되는 곳에 잭 메스빈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및 자녀들 모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귀여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집안의 귀염둥이였습니다. 딸의 이름은 크리스탈이었는데, 그녀는 열 살밖에 안된 나이에 지상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크리스탈은 가족들이 사는 큰 목장에서 뛰어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 타는 솜씨도 뛰어났으며 4H 클럽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지역 및 주 행사에서도 수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기에 장래가 촉망되었고, 여러 모로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탈의 다리에서 심상치 않은 혹이 발견



루이지애나 주 슈리브포트에서 130킬로미터쯤 되는 곳에 잭 메스빈씨 가족이 살고 있었다. 이 가족에게는 귀여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집안의 귀염둥이였다. 딸의 이름은 크리스탈이었다.

되었습니다. 뉴 올리안즈의 전문의들은 종합 검사를 한 뒤, 이것이 암이라는 최종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리를 잘라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크리스탈은 용케 수술을 이겨내고 전과 다름없이 씩씩하게 지냈습니다. 불평 한 마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의사들은 암이 그녀의 작은 폐로 전이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크리스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 한 발 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신앙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탈은 스테이크 대회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곤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스테이크 대회에 누가 오시든 제게 축복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편 슈리브포트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리가 없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 슈리브포트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는 그 주말 동안 저는 텍사스 주 엘 파소의 관리 지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셨던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사무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십이사도 한 분이 엘 파소의 스테이크를 분할하는 일에 관한 준비 작업을 일부 마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분은 저는 다른 곳으로 부름 받고 다른 분이 엘 파소 대회 관리 임무를 맡아도 괜찮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벤슨 회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몬슨 형제님, 아무래도 형제님께서 루이지애나 슈리브포트 스테이크를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임무 지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고, 저는 슈리브포트에 도착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는 여러 모임으로 빈틈이 없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단과의 모임, 신권 지도자들과의 모임, 그리고 축복사와 모임이 줄을 이었고, 끝으로 나머지 스테이크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스테이크 부장님인 찰스 에프 케글 형제님이 제게 다소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혹시 짬을 내 암으로 투병 중인 10살 난 소녀를 축복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크리스탈 메스빈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으며, 크리스탈이 스테이크 대회에 올 것인지 아니면 슈리브포트 병원에 입원 중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일정이 뻑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케글 부장님은 기어드는 소리로, 크리스탈이 슈리브포트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과 다음 날 아침 일정 및 되돌아갈 비행기 시간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도무지 짬이 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대안이 떠올랐습니다. 대회를 하는 동안 기도로서 그 소녀를 기억할 수는 없을까? 분명히 주님이 사정을 아실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정 하에 모임을 예정대로 진행시켰습니다.

그러한 사정 이야기를 들은 메스빈 가족은 한편으로 이해는 하면서도 실망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소중한 크리스탈의 소망이 성취되기를 염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열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메스빈 가족이 무릎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스테이크 센터에 있는 시계 바늘이 저녁 7시 45분을 가리켰습니다. 토요일 지도자 모임은 참으로 영적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해 둔 것들을 챙기면서 연단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영에 무엇인가를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했고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14) 메모해 놓은 것들이 흐리게 보였습니다. 제 마음은 축복 받기를 원했던 그 꼬마 소녀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이 섰고, 모임 일정을 바꿨습니다. 모임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임스 세라 감독님에게 메스빈 가족을 찾아가 저희가 축복을 주러 갈 것이라고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메스빈 가족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전화 벨이 울렸고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날인 안식일 아침 일찍, 금식과 기도의 영으로 저희가 크리스탈의 병상을 찾아갈 것이라는 전갈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스빈 가족이 집으로 불러들인 일요일 아침의 그 천국으로의 여행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스러운 장소에 여러 번 있어 보았지만-물론 성스런 가정들도 가 보았고-메스빈 태에서 만큼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체구의 크리스탈은 큰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방은 화사하고 따사로웠습니다. 동쪽 창문에서 들어온 햇살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들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족이 크리스탈의 침상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 일어날 수조차 없는 한 어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어찌나 약한지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눈도 못 떴습니다. 영이 제 몸을 감싸고 저는 무릎을 꿇고 크리스탈의 힘없는 손을 잡고 짧게 몇 마디 했습니다. "크리스탈, 내가 왔단다." 소녀는 겨우 입을 떼더니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몬슨 형제님,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서 있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들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가느다란 미소가 크리스탈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소녀의 "감사합니다."라는 작은 소리가 폐회 기도를 대신했습니다. 다들 살며시 방을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나올 뒤 목요일, 슈리브포트 교회 회원들이 신앙으로 메스빈 가족과 함께 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크리스탈의 이름은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특별한 기도로 기억되었으며, 크리스탈 메스빈의 순결한 영은 병마로 쓰러진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식날 아침 햇살 가득한 침실에서 무릎꿇고 기도 드렸던 저희들과 날마다 딸아이가 떠난 방에 들어가 딸을 그리워할 크리스탈의 부모님에게 유진 필드의 다음과 같은 불후의 시는 아주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작은 장난감 강아지는 먼지가 쌓였지만  
튼튼하게 버티고 서 있네  
그 꼬마 장난감 병정은 잔뜩 녹이 슬었고  
손에 든 총엔 곰팡이가 슬었지  
장난감 강아지가 생생하고  
꼬마 병정도 온전할 때가 있었지  
그건 바로 리틀 보이 블루가 녀석들에게  
뽀뽀를 하고 거기 세워뒀을 때였어

그는 "내가 올 때까지 가 있으렴"이라고 했지  
"절대 시끄럽게 해서도 안돼!"  
그리곤 바뀌달린 침대로 아장아장 걸어가  
그는 예쁜 장난감 꿈을 꾸었네  
꿈에선 한 천사가 노래를 불렀고  
우리의 리틀 보이 블루는 그렇게 영원한 잠에 들어갔지  
아, 세월은 그렇게 빨리 지나갔어  
그렇지만 꼬마 장난감 친구들은 정말 진실해!

맞아, 그들은 리틀 보이 블루에게 충실했어  
그가 세워 놓은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았지  
작은 손길을 기다리면서 말야  
조그만 얼굴엔 미소도 머금고  
먼저 뽀얀 꼬마 의자에 서서  
기다린 세월은 그렇게 길지만 한데  
리틀 보이 블루는 어찌 된 걸까  
뽀뽀해주고 거기 세워두더니

어디로 간 걸까("리틀 보이 블루", 말일성도들의 애송시, 잭 앤 라이언 외 편집(1996년), 50쪽)

저희들은 궁금해하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25~26) 잭과 낸시 메스빈 두분께서는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그리고 두분의 귀여운 크리스탈로부터는 이러한 위안의 말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2~3)

위층 좌석에 앉아 있는 제 꼬마 친구와 전세계에 있는 청중들께 저는 나사렛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간증으로 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는 주께서 이 말씀을 요단강 근처의 유대 해안에 모인 군중들에게 하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께서 이 말씀을 루이지애나 주 슈리브포트에 임무 지명을 받은 한 사도에게 하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간증 드립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가복음 10:14)는 말씀은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에 관해 사도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이다.
2.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3.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그들의 신앙과 신뢰를 배워야 한다.





## 에블린 페레스

### 참고 기다린 수확

테리 크루시

1969년, 에블린 페레스는 프랑스 베이욜드의 한 서점에서 일을 하던 중 말끔한 차림의 예의 바른 두 젊은이를 보게 되었다. 이들은 이따금 이곳을 찾고는 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제

게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영어 회화반에 관한 알림 판을 걸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라고 당시를 회상한다. “자기들은 선교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이들이 토론을 하러 제 집을 찾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침례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을 충실하게 남아 있어야 할까?

프랑스 앙띠베의 페레스 자매의 경우 22년을 기다려야 했다.



다음에야 전 그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분들을 알게 됐죠.

“전 물론에 대해 별로 좋은 얘길 들질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미에 사는 제 친구 하나가 그러더군요. ‘물론들은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존중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자기들 생활 방식을 강요하질 않아.’ 그 말에 전 감동 받았습다.”

### 씨앗이 뿌려짐

에블린은 교회에 관한 것이라면 찾을 수 있는 한 찾아 읽기 시작했다. 결국, 구원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고, 수혜자의 개인적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그로 하여금 자립하게 돕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 크게 감동 받았다.

하지만 에블린은 물론경을 처음 읽었을 때 실망했다. 그녀는 늘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의 아메리카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물론경에 나온 것은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사실들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책의 가르침이 무척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전 무언가에 이끌려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 “내가 개종하게 된 전기”

선교사들은 에블린에게 *레프탈*(불어판)을 몇 부 주었다. 그녀는 그 책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에블린은 이렇게 회고한다. “이 세상 어딘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제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세상에서 가족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에 관해 잘 알게 되었으며,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해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에블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이 제 개종의 전기가 되었습다. 전 아직 요셉 스미스나 물론경을 받아들일 만큼 준비가 되진 않았지만, 계명에 따르기로 마음먹었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과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과 신앙개조라는 서적 및 교리와 성약을 읽으면서 해결되었다. 또한 새로운 시각에서 신약 성경을 읽다보니 그녀가 연구하던 사

람들과 가르침에 직접 적용되는 성구가 발견되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태복음 7:15~20 참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에블린의 사랑과 간증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녀는 이제 막 피어나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물론경을 읽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역사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읽기로 했다. 마침내 에블린은 물론경 읽기를 통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에블린의 남편은 모든 교회를 불신하고 있었기에 그녀가 침례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그녀는 자신이 받아들인 복음을 일관성 있게 지켜 나갔다. “남편을 변화시키려 해서 안되고, 제 자신이 변화해 더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린 7백 킬로미터쯤 떨어진 앙띠베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때문에 한동안 교회와 연락이 끊겼죠. 하지만 저와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과 계속 사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결국 선교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몇몇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보이시는 사랑에 대해 좀더 깨닫게 되었죠. 우리들이 더욱 인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에블린은 자신이 지부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다. “모두들 따뜻하게 잘 맞아 주었으며, 전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누구도 다른 자매를 비난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 신앙의 수확

1991년은 에블린이 교회 회원으로서 성장하는 가운데 큰 수확을 거둔 한 해였다. 그녀의 20살 난 손녀 바네씨가 할머니 집에 머무는 동안 선교사들이 방문했다. 이 아가씨는 교회 사교 모임에 초대 받은 다음 곧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바네씨가 침례 받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에블린은 선교부장으로부터 침례 허가를 받았다. 1991년 6월 그녀가 침례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바네씨가 침례를 받았다.

몇 년 전 페레스 자매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기 얼마





최근 복음 선교 사업을 마친 에블린 페레스(오른쪽)가 자신의 워드에  
서 가장 고령 회원인 줄리안 레쉬를 만나고 있다.

전 교회에 입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2년이라는 기다림의 세월 끝에 드디어 페레스 자매의 인내  
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교회 봉사에 대한 자신  
의 수확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한다. "개심이란 끝이 있

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든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이  
니까요. 하지만 제가 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확신은 분명히 있습  
니다. 전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페레스 자매는 침례 받은 후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자신이 거둔 수확의 기쁨을 남과 함께 나눔으로써 봉사하겠다는  
결심에 따라 생활해 왔다. 최근에는 잉글랜드 브리스톨 선교부  
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한 뒤 귀환하기도 했다. □



# 토요일은 봉사하는 날

제나 닐슨

**토**요일 이른 아침. 일거리가 태산같다. 친구와 놀아야겠고 어쩌면 밀린 숙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윽고 전화 벨이 울리면서, 이번 토요일이 와드 청소년 봉사 활동 날임을 상기시키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한 시간만 더 잘 수 있었으면 하고 푸념하지 않는가?

물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버지니아 리치먼드 스테이크 산하 리치먼드 와드에 속해 있다면, 별 어려움 없이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러분이 하는 봉사의 대부분은 비회원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은 선교사와 함께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 열의를 보임

토요일 오늘 아침, 리치먼드 와드 청소년들은 다섯 구역으로 서로 흩어져 봉사를 하게 된다. 제일 먼저 찾을 곳은 리치먼드 시 중심에 있는 한 작은 집이다. 14살 난 잭 하튼과 그의 친구 월 존스는 이곳에 남아 갈퀴로 나뭇잎을 긁어모으고 잡초를 뽑으며 재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잭은 자신이 돕는 가족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 가

족이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도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돕고 있어서 기뻐요. 제 친 형제 자매를 도울 때 그런 느낌이 들듯이 말이죠."라고 잭은 말한다.

그의 친구 월 또한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잭이 오늘 함께 가자고 초대를 해주어서 기뻐한다. 월은 봉사에서 오는 크나큰 기쁨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 월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감 같은 걸 느낍니다. 처음엔 잭과 같이 스카우트 활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제 자신이 이 정도까지 깊이 참여하게 될 줄은 몰랐죠. 사람들끼리 이렇듯 관심을 갖고 돕

*왼쪽에서 시계 도는 방향으로:* 가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는 사람이 많기에 자원 봉사자들은 신속하고 재미있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브렌다 닐슨(왼쪽)과 그녀의 친구들인 헬렌 케이프하트 및 케시 프레지이어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 카메론 자매는 선교 사업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봉사 활동에 바치고 있으며, 멜로리 하튼은 그러한 모범에 존경을 보낸다. 크리스 오델이 회원으로서 첫 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헤더 스웬슨(왼쪽)은 누군가를 위해 집을 날라 줄 때는 그것이 그다지 무겁지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타드 스웬슨(가운데)이 삼을 사용해 도움을 주고 있다. 사는 워커(오른쪽)가 진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뜰에서 일을 하면서 다들 서로 도와주곤 했어요. 도와달라는 말을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전 제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케리 플레밍은 일이 열심히 봉사하는 데 감동을 받았다. 그녀 역시 청소하는 일을 돕고 있다. “와서 보니 집이 무척 지저분하더군요.”라고 케리는 말한다. “이걸 다 어떻게 치워야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어쨌든 일이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잡초를 뽑아냈습니다. 덩달아 기분도 좋아졌고요.”

케리는 전날 밤 어머니가 해준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솔직히 전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가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저의 간증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 무릎꿇고 기도 드렸으며, 결국은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됐죠.”

### 모범이 됨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체러티 홀더니스가 리치먼드 와드에 소속된 회원 집의 침실과 욕실을 청소하고 있다. 체러티가 이런 일을 하다니... 아무래도 좀 예상 밖이다. “어머닌 제가 제 방을 치우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되시나 봅니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한다.

오늘 체러티는 어딘가 다른 느낌을 갖는다. “그 느낌이 어떻

다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의 일부분도 하질 않았었죠. 그렇지만 저도 작은 일이나마 계속할 수 있다는 걸 알고부터는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집에 가면 주방 바닥이라도 쓸어야 할까봐요.”

13살 난 케이티 잉글스 또한 이곳에 있다. 케이티는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친구인 에이프릴 레이스의 권유로 여기에 왔다. 에이프릴은 “케이티가 제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돕는 걸 좋아함을 알았으면 해서” 케이티에게 오라고 했다고 한다.

이곳에 있는 두 명의 선교사는 모범이 되지는 에이프릴의 생각에 동의한다. 캘리포니아 주 비셀리아 출신의 제프리 몰튼슨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저희는 이 지역에서 잠시 봉사하는 선교사일 뿐입니다. 따라서 와드 회원이 비회원과 교제를 하는 것만큼 바람직한 일은 없겠죠.”

### 친구가 됨

사람들 간의 교제가 나무를 잘라 주는 것은 물론이고 3번째 청소년 그룹이 있는 곳에서 한창 꽃을 피우고 있다. 올해 나이 17세인 타드 스웬슨도 이곳에서 봉사를 하는데, 나무 뿌리를 뽑거나 나뭇잎을 치우는 것이 다소 피곤을 가져온다. 그렇더라도 일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전혀 지루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일을 하긴 처음이에요. 하지만 또 한번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와주면 사람들은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고 느끼나 봅니다.”라고 타드는 이야







기한다.

벤 멀린즈(14세)도 타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봉사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 회원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서 또한 봉사하는 것에 대해 더 나은 자세를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헤더 스웬슨에 따르면, 토요일에는 봉사만큼 더 보람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 "토요일 하루 정도 내는 게 뭐 어렵겠어요. 앞으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시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죠."

### 하루를 보람있게 보냄

마을 건너에 활동이 저조한 와드 회원 집이 하나 있는데, 크리스 오델은 여기서 자신의 시간을 선용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게 오늘 제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최선의 것이겠죠,"라고 크리스는 이야기한다. "전 봉사할 때 친구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14살의 린지 랜싱도 이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봉사는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표시죠." 린지는 자매 선교사들을 도와 나뭇잎과 지저분한 것들을 모아 쓰레기 봉지에 넣는다. 그녀가 자매 선교사들과 함께 이웃이나 활동이 저조한 와드 회원들에게 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 기회 있을 때 마다 이 일을 합니다."

린지와 크리스와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은 일을 빨리 마친다. 그러나 그들은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그룹을 찾기 위해 청소년 지도자의 승합차에 탄다.

### 복음의 빛을 함께 나눔

리치먼드 와드의 청소년들이 마지막으로 스페트라나 이스키아

에프의 신발 가게 벽에 끝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가게의 뒷방을 정돈하고 페인트 칠을 하는데 오전을 보냈다.

스베트라나와 그녀의 남편은 러시아에서 각각 의사와 변호사로 일하다 몇 년 전 버지니아로 이주해 왔다. 지금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다. 헬렌 케이프하트(16세)는 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흐뭇해 한다. 헬렌은 두 명의 비회원 친구들에게 오늘 자신을 도와 함께 일하자고 권유했으며, 이스키야에프씨 부부는 물론 친구들도 그녀의 봉사를 통해 복음의 빛을 보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결국 봉사의 모범은 헬렌 자신도 것처럼 짧은 기간에 복음 안으로 인도되게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또한 이곳의 제 친구들이 보여 준 훌륭한 모범에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게 가장 귀감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 봉사하면서 전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항상 그런 느낌이 제 안에 남아있길 바랍니다."

### 아름다운 느낌

그런 느낌이 헬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그녀가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 즉 봉사로 인도하는 소중한 열쇠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리치먼드 와드 청소년들이 하루 동안의 봉사 활동을 간증 모임으로 마칠 때 헬렌은 다시 한번 이 활동의 주제를 확인한다. "제 생애에서 주님께 봉사할 때만큼 강하게 영을 느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표지에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실은 잡지를 한번 쳐다보세요. 사람들은 이걸 미(美)라고 부르죠. 저는 오늘 일하면서 온 몸이 페인트와 먼지로 범벅이 됐습니다. 전 이런 모습이야말로 주님이 보시는 미(美)의 정의가 아닐까 합니다."

헬렌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구세주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행복을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겠는가? □



# “너희가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토**마스 무어는 83살의 나이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인 산토 도밍고에 있는 교회에 입교하였다. 무어 형제는 빵을 굽는 일을 한다. 그는 선교사들을 집으로 불러와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차려 먹이는 것을 좋아한다.

“선교사들은 거의 모든 끼니를 샌드위치로 때우고 있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무어 형제는 선교사들이 “생전 본 일도 없는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즐겨 봉사를 한다. “변변치 않지만 선교사들을 위해 봉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 큰 특권입니다.” 무어 형제는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일함으로써 기쁨을 얻는 보람을 터득하였다. (모사이아서 2:17; 갈라디아서 5: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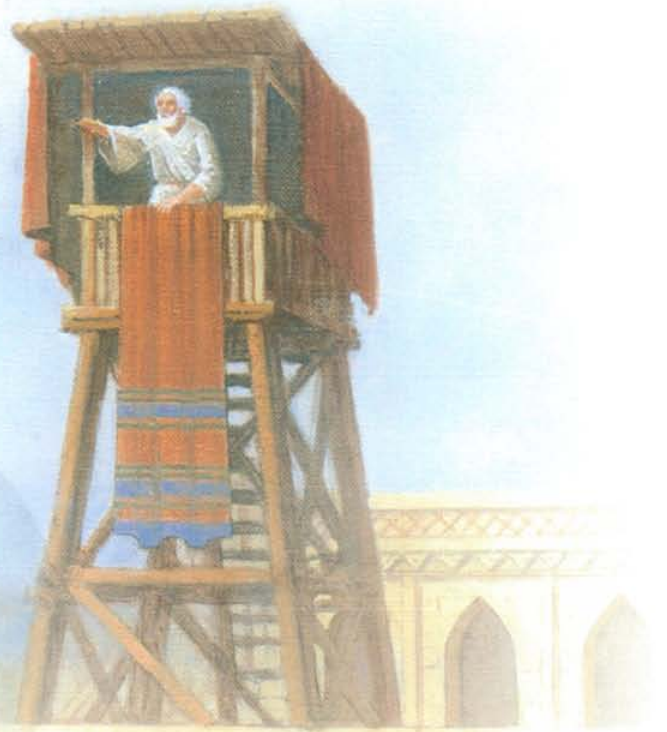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해도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나탈리오 비라제피아 형제는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에서 혼자 살고 있다. 가진 재산은 별로 없지만, 보살펴 주어야 하는 회원의 집 밖이나 그가 일하는 밭 가까이에 세워둔 낡디 낡은 자전거를 보면 비라제피아 형제가 이웃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지를 알 수 있다. 자신의 소유인 땅이라고는 한 뼘도 없지만, 그가 곡식의 종자를 심을 수 있는 빈터는 어디에나

있는 듯 했고, 주님은 그에 게 풍성한 수확의 축복을 내려 주신다. 그가 갖고 있는 밭이 해야 얼마 안되지 못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엔 충분하다. “제구는 작고 허약하나 어디든지 다니며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웃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성도들의 애기는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 시우다드 빅토리아 스테이크에 소속된 282명의 회원들은 2.5킬로미터 구간의 고속도로를 청소하고 가꾸기 위해 날씨가 차가운 2월 어느 날 아침에 모였다. 회원들은 조심해서 잔디를 깎고 비료도 주며, 나무 줄기와 연석에 흰 도료를 칠하고, 보도에 하수구를 만들며, 거리를 청소하며, 수트럭 분의 쓰레기를 주웠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로부터 부름을 받고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산타 벨 이카 레예즈 데 르는 회원들의 작업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말한다.

봉사란 때로는 오랜 시간과 많은 인내와 신앙을 요구하기도 한다. 벨기에 앤트워프 성 니콜라스 지부의 크래트 자매는 뇌출혈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상호부조회 회장인 플라 부스 자매는 지체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대로 크래트 자매 곁을 지





키게 하였다. 몇 주일이 지나자, 몇몇 사람들은 크래트 자매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낙담을 하였다. 그래서 부스 자매는 크래트 자매와 얘기를 나누며, 책을 읽어 주며, 찬송가를 불러주며 간호하느라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게 되었다.

마침내 크래트 자매는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부분적으로 마비되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녀의 회복은 더디고 고통스러웠다. 부스 자매는 간호사가 없을 때 친구가 되어 주고, 사랑과 희망을 주며 그녀를 돌봐 주었다. 부스 자매는 상호 부조회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다.

봉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즉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며, 복음을 나누고, 교회의 부름을 이행하며, 병자를 방문하며, 시간, 재능 및 물질적 재산을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봉사를 할 수 있다. 봉사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분의 자녀들과 나누는 것을 말한다. □

기고자: 엘리자베스 벤덴벨게, 낸시 알 래 대스 후웬 테스, 산타 벨 이카 래예즈 대 드 및 루스 프레드

성도의 벗은 이웃을 위해 일을 하여 영향을 미친 개인 또는 단체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주소 (You Can Make a Difference,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가능하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기사의 주인공, 단체, 또는 봉사 활동에 대한 사진을 최소한 한 매 정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시우다드 빅토리아 스테이크의 회원들이 함께 고속도로 청소를 하고 있다.

산타 벨 이카 래예즈 대 드 사진 제공: 그림: 제리 켈 카프, 배나인 용이 니프리 백인들에게 성교를 함.



#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력과 권고의 말씀



## 청남 청년들이 서로를 강화함

“저는 여러분의 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하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용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힘을 합하여 노력하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신학 연구원 대학부나 중등부에 참석하여 거기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함께 누리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를 교회 회원들 가운데서 찾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결하여 서로를 강화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유혹의 시기가 닥쳐와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축복해 줄,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약할 때 서로를 도와 곳곳이 충실하게, 그리고 선하고 참되게, 버텨 나갈 수 있습니다.”(지역 대회, 오레곤 주 유진, 1996년 9월 15일)

## 복음을 사랑함

“저는 여러분이 전진하면서 복음대로 생활하고 복음을 사랑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하고도 영광스런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일부로 삼아 온 지상에 퍼져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상 왕국인 교회의 일부분이 되게 하십시오.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복음을 사랑하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몰몬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에 대한 간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

이란 영원한 진리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솔트레이크 슈가 하우스 스테이크 대회, 1997년 1월 5일)

## 가정의 밤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사랑 안에서 부모 형제 자매들이 함께 꾸며 나가는 전통적 가정을 보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적에 대항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밤을 따로 정해 가족 활동으로 가정의 밤 갖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경전에 있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집안 일을 논의하고 휴가를 계획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노래하고 기도를 합니다. 가정의 밤은 큰 효과를 가져다줍니다!”(언론인들과의 오찬회, 워싱턴 디 시, 1996년 12월 2일)

## 선교 사업을 함

“청소년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장차 여러분이 선교사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될 일은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행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자신의 생애에 축복이 올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위해 가정을 떠난 후 여러분의 가정에도 축복이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에서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나 옳은 일을 택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성장시켜 그분의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쓰실 것입니다.”(노변의 모임, 브라질 레시페, 1996년 11월 15일)





### 죽음에 의연히 대처함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극적인 때일지라도 우리가 영생의 실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진다면, 하늘 아래 다른 곳에서는 올 수 없는 평안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지역 대회, 텍사스 주 플라노, 1996년 3월 17일)

### 대리 사업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은 제가 아는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구세주 자신의 대리 회생에 가까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리 사업은 보상이나 보답이나 또는 이와 비슷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전한 사랑으로 행해집니다. 얼마나 영광스런 원리입니까!”(노변의 모임, 영국 버밍햄, 1995년 8월 29일)

### 감독

“누구에게나 감독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감독은 참으로 경이로운 직분입니다. 이 교회의 훌륭한 감독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자면 아무리 찬사를 보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서 오는 보람과 그들이 섬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칭찬만을 받을 뿐, 완전 무보수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감독들에 대해 크게 감사드리며, 저는 그 분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영감과 신앙과 지혜, 그리고 체력과 활력과 정력이 넘치는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역 대회, 신권 역원회, 오레곤 주 유진, 1996년 9월 14일)

###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책임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책임은 막중하고 우리의 기회는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 어느 기회, 어느 상황에도 우리는 우리의 표준을 낮추어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지역 대회, 유타 주 스미스필드-로잔, 1996년 4월 21일) □



# 간음하지 말찌니라

더블류 제프리 미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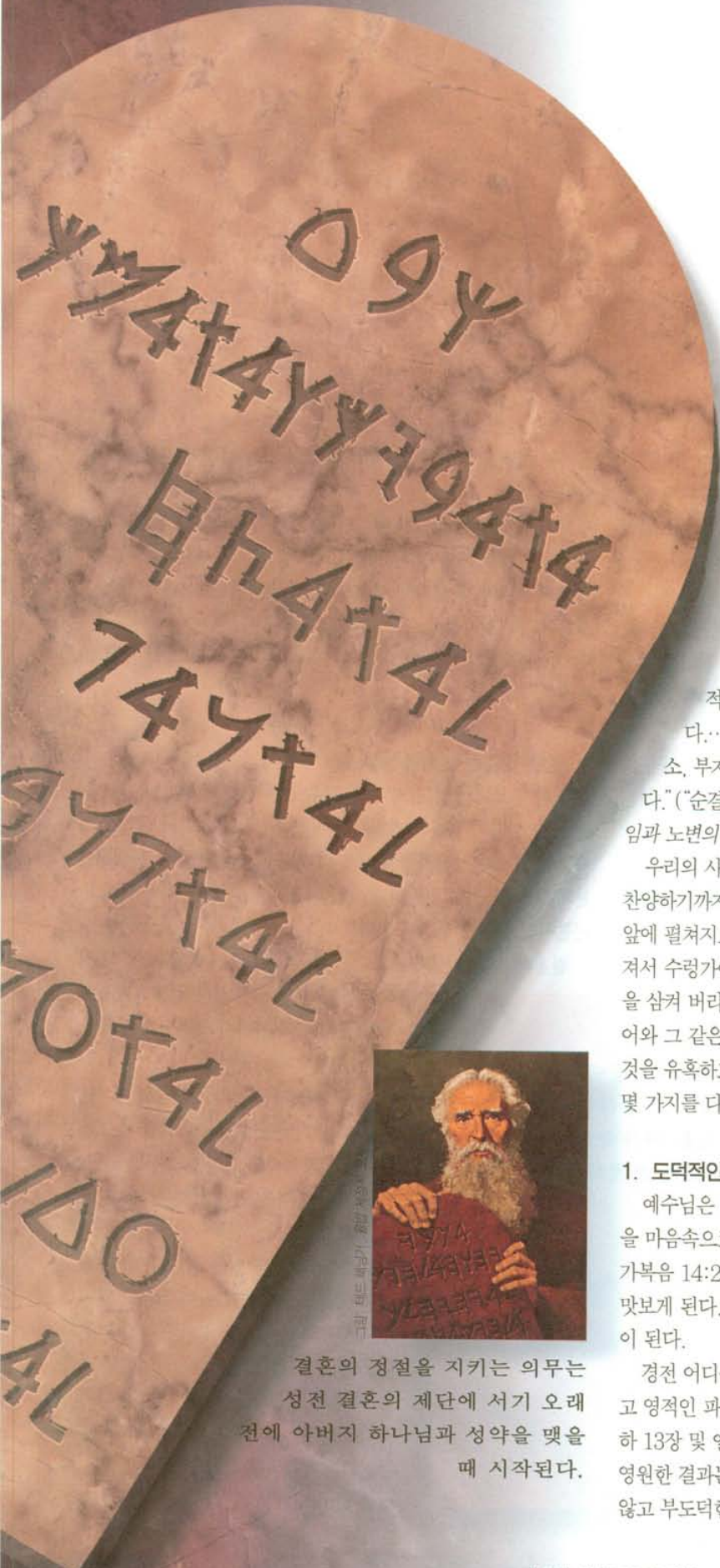
세상이 뭐라고 가르치든지, 주님께  
서 정한 결혼생활의 정절에 대한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물** 본경을 보면, 코리호어는 도덕에서 절대  
적인 기준은 없으며 다만 "너희를 옳지  
않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너희 조상들의 전언"이라  
고 제이라헤물라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엘마서 30:14,16)  
백성들은 어찌면 이같은 악마의 설법을 좇아 별이나 유죄를 무서워  
하지 않고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였을 것이다.

오늘날의 코리호어는 중대한 결과를 겁낼 필요없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도  
괜찮다는 감언 이설로 우리를 피고자 같은 설법을 펼치고 있다. 이 수법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기 위해 한결같이 써먹는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말일성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도덕적인 청결함에





대에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어서는 안된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었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시내 광야에서 주신 계명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당시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교리와 성약 59:6; 강조 사항 추가) 태초부터 주님은 성적 순결의 기준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정하였습니다. ... 그 기준은 바로 순결의 법입니다. 이 법은 남녀 노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만민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순결의 법", *브리감 영 대학교 1987~1988년 영적인 모임과 노년의 모임 말씀*, 50쪽)

우리의 사회가 부도덕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찬양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곧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도덕의 절대 기준이 없는 죄의 수렁이 계속 커져서 수렁가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제발로 수렁에 빠지려는 사람들을 삼켜 버리기를 기대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코리호어와 그 같은 부류의 족속들은 사람들이 부도덕의 수렁에 다가갈 것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청결해야 할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1. 도덕적인 순결을 지킬 때 주님의 영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가르치고 명하는 일들을 행할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도록 훈계하셨다. (요셉 스미스역, 누가복음 14:28 참조) 도덕적인 청결을 지킬 경우, 우리는 화평을 맛보게 된다. 우리가 순종하려 하지 않을 경우, 쉽게 악의 제물이 된다.

경전 어디를 펼쳐도 부도덕에 굴복한 결과로 생기는 개인적이고 영적인 파멸에 대한 구절을 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13장 및 엘마서 39장 참조) 도덕적인 죄를 지을 때 겪게 되는 영원한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다. 구세주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도덕한 생각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결혼의 정절을 지키는 의무는 성전 결혼의 제단에 서기 오래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때 시작된다.



왕국의 거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 5:16~21; 니파이일서 15:33~34 참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교훈과 모범으로 올바른 도덕적 선택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훈계를 받는다. 말일성도의 실천과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대관장단이 다음과 같이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성적인 애정 행위는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결혼 후에 온전한 충실함을 요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 전의 자제와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결코 상대편(또는 배우자)를 욕망이나 자아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특히 금하신 행위에는 결혼 전의 모든 성 관계, 애무, 성도착(동성 연애, 강간, 및 근친 상간 등), 자위 행위, 기타 생각과 언행이 성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1990년], 17쪽. 젊은이들에게 애정 행위 전반에 대해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은 부모 지도서[1985년]에 나와 있다.)

우리의 인격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욕망에 의해 형성된다.



그림: 그리고 케이 울슨.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 걸려있는 내 영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르치고 명하는 일들을 행할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도록 훈계하셨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코리호어가 아니라)

께서 명하는 것을 실천할 때 고결한 인격이 나타나게 된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의 영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취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나...”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교리와 성약 121:45~46)

## 2. 혼전 순결은 신뢰를 날게 됨

결혼 후 정절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결혼 관계가 파괴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파멸이 이어진다. 혼전 순결의 상실은 잠재적인 파트너의 신뢰를 해치게 되어 불안정한 정서 및 신체적인 문제, 즉 위험스런 질병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동시에 신뢰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

결혼의 정절을 지키는 의무는 결혼식 날 혼인 성약을 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결혼의 제단에 서기 오래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때 시작되는 것이다.

한 여성은 자신과 앞으로 남편 될 사람이 스스로 기만하여 성적인 죄를 경고하는 계명을 어기더라도 혼전에 동거를 하면 그들의 사랑이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일을 회고하였다. “친구들이 혼전 동거가 신뢰를 깊게 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망치게 하였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 서로 불신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각자가 혼전에 어떤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과연 서



우리의 인격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욕망에 의해 형성된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실천할 때 고결한 인격이 나타나게 된다.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데이비슨



료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경우처럼, 의심은 종종 불신을 낳게 되고, 불신은 다툼을 낳으며, 다툼은 별거와 이혼을 낳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도덕적인 청결함은 신뢰와 화평을 낳게 한다.

### 3. 도덕적인 청결은 사회가 파멸되는 것을 예방해 줌

“우리 사이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제3자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생활에서 행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도덕을 이처럼 정당화하는 보편적 수법은 사탄이 뻔뻔하게 둘러대는 거짓에 불과하다. 이 얘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원하는 위험한 물질로 공기를 오염시키려 하는 데 싫으면 숨쉬지 마시오.”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 친구 및 하나님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해를 입히게 된다.

더구나 개인적인 행동은 공중 도덕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사회라는 직물을 구성하는 한 가닥의 실과 같다. 실 대부분이 약하여 찢어 버린다면, 문명의 천이 온전하고, 튼튼하며, 질기기를 바랄 수 있을까?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경고했다. “[이 세상엔] 결혼과 가족이 없는 삶을 [정당화할 수도 없으며, 계속해서 존속시킬 수도 없습니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혼인 이외의 성관계는 주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며, 많은 사람이 이 위대한 진리에 눈이 먼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는 우롱 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성도의 빛, 1975년 2월호, 34쪽)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결정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대가족의 식구, 급우, 사회 및 미래의 자손에게 긍정적이면서도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명기 11:27; 마태복음 5:16; 교리와 성약 115:5 참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죄, 슬픔 및 비탄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삶

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모로나이서 7:15; 니파이서 2:27 참조)

약혼을 한 젊은 남녀는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웠다. 두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여자의 룸메이트나 남자가 같이 사는 식구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단둘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원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져 호수의 언저리를 따라 뻗은,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길 근처에서 멋진 밀회 장소를 찾았다. 두 사람은 사랑을 속삭일 얘기 말고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자동차 시동을 끄고 불과 몇 초도 안되어 두 사람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영의 강한 속삭임을 느꼈다. 그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공공 장소로 나갔다.

“우리가 그 장소를 떠나야 했던 이유를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속삭임에 순종했다는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속삭임의 의미야 어찌됐든, 그것은 우리가 결혼 생활과 개인 생활에서 방향을 찾을 때 성령의 음성을 인식하는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4. 도덕적인 약점은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극복될 수 있음

감독은 난감했다. 동성애의 유혹에 빠진 한 젊은이가 기도, 금식, 경전 공부, 교회 참여, 자제 등에 관해 감독이 해준 권고를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어 했던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감독은 그 젊은이가 집단 치료 모임에 참석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젊은이의 말에 따르면, 그 집단 치료 모임에서는 문제



점들을 자세하고 지루하게 토론하는 정도 외에는 어떤 지도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그 모임이 “끄러고 하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정도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과거에, 워드 내의 어떤 회원은 치료 모임에서 효과를 보았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 젊은이는 아직도 힘들어 한단 말인가?

일주일 내내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했던 감독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의 이러한 말씀이 생각났다. “복음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연구가 행위를 향상시키는 것보다 더 빨리 행동을 향상시켜 줍니다. 합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선입견은 합당하지 않은 행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21쪽) 그는 또한 벤슨 대관장의 이런 말씀을 보았다. “주님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역사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켜 인간이 환경을 바꾸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로 남”, 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6쪽)

성령이 지시하는 속삭임을 느낀 감독은 과거 30년 간의 연차 대회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동성 연애 극복에 관련된 모든 말씀을 타이프로 친 다음, 청년에게 정리된 말씀을 주고 복음을 연구하는 셈치고 읽어보도록 당부하였다. 일주일 후 청년은 감독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감독님, 정리된 말씀을 통하여 얻은 힘과 용기 덕분에 저는 전진해야겠다는 의지와 더 잘하겠다는 욕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이 경험을 계기로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구세주의 권능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으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복음의 원칙을 적용하게 하여야 하며, 여기에 훈계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세주는 우리가 세속적인 일에 탐닉하지 말고 성스런 생활을 하도록 명하신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되는 임무를 완수하

고 대속을 위한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는 온갖 시련, 갖은 유혹, 모든 결점과 죄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다. (엘마서 7:11~13 참조) 우리는 시련 속에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구세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과 자비를 우리에게 위임하였다. 바로 이 힘과 자비 때문에 유혹을 물리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별탈 없이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 그분은 우리의 증보자이시며 영원한 친구로서”인간의 약점을 아시며 유혹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 (교리와 성약 62:1)

##### 5. 도덕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해의 왕국의 표준임

최소의 기대치를 최대의 목표를 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진보를 막는 경우가 있다. “간음하지 말찌니라”는 계명은 주님께서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걸고 계시는 최소의 기대치라 할 수 있다. 해의 왕국의 보다 숭고한 율법은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라도 결합하지 말라”는 것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신앙을 부인하는 자라. 영을 지니지 못하리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어 쫓기리라.”는 계명이다. (교리와 성약 42:22~23; 교리와 성약 63:16 참조)

히브리 성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유대의 성서 외경에 실려 있는 한 얘기는 본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얘기는 “수잔나의 역사”로, 여기에서 젊은 예언자인 다니엘이 등장한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경(1968), 1252~1253쪽에 나오는 다니엘 13장의 내용을 풀어서 인용한 것이다.) 수잔나는 매우 아름답고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다. 그녀에 대해 음욕을 품으며 그녀를 원했던 남자가 지극한 두 명의 이스라엘 판사는 홀로 사는 수잔나를 놀라게 하며 그들의 청을 들어주든가 아니면 있지도 않은 연인과 밀회를 즐기며 간음을 하였다든 허위의 사건에 대해 변호해 보라는 공통스러운 선택을 그녀에게 강요하였다. 간음에 대한 형벌은 곧 사형이며 그녀가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권력의 제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죄, 슬픔, 비탄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보람입니다.



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느니 차라리 순결을 지키며 당신들의 권력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울부짖으며 도움을 간구하였다.

그녀를 돕는 손길이 미치지자, 두 사람은 욕설을 퍼부어 댔으며, 결국 그녀는 사형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의로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두 명의 공모자를 폭로할 것을 권하였다. 수잔나에게 내려졌던 사형 선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내려지게 되었다.

두 사람의 부패한 지도자들의 경우처럼, 주님의 심판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도덕적 죄를 은폐하려는 자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 6. 도덕적 순결은 지키기가 쉽지 않으나 그럴만한 가치가 있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다. “또는 너희는 끊임없이 덕을 쌓으며 내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46:33) 우리가 독신자이든 기혼자이든 덕을 쌓으려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정서적인 영향, 신체적인 환경 및 제반 활동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말일성도의 대부분 청년들은 데이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나 아파트에 들어가는 안되며, 건전하지 못한 영화와 활동을 피하여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혼자들도 부부가 아닌 이성의 회원들과 단둘이 있는다든지 그들로부터 특히 결혼 문제에 대해 urgent 견해를 들으려 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기혼자들이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이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한계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감독은 자기 와드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훈계하였다. “여러분은 이러한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접전한 도덕 상의 죄를 지은 청년 가운데

태 이러한 지침 중 단 몇 가지라도 제대로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규칙과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은 비탄과 중한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16) 이 훈계에 순종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간증했다. “주 하나님은 자녀들의 순결을 기뻐하십니다. (야곱서 2:28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순결을 지킬 때 물론 기뻐하시지만, 그분은 순결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순결의 법”, 영적인 모임과 노년의 모임 말씀[1988년], 50쪽)

이와는 반대로, 사탄은 인간에게 불행을 안겨 주려 한다. 사탄은 인간을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지름길은 부도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유혹의 손길이 뻗칠 때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말일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잘못을 저지를 경우 이를 회개하며, 신앙으로 삶의 진로를 의로운 길로 수정하려 하기 때문에, 필경에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해의 영광에 가게 될 것이다.

“더욱 더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상태를 마음에 기억하라. 보라 이들은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법사에 축복을 받으며, 이들이 끝까지 충실할진대 하늘에 영접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이 그치지 아니하는 곳에 거하리이다. 오 너희는 이러한 것들이 진실함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라.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모사 이야기 2:41) □





그림: 김민아

## 고마워요, 노라!

알바 스텔라 카나베랄 블란돈

**제**가 지부에서 청녀 회장의 부름을 받았을 때 청녀들과 가까워지거나 청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선 제가 해야 할 일은 좀더 사교적이어야 하고 수줍음을 타는 것부터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힘에 부친다고 생각되어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콜롬비아 발레두파르 스테이크 시몬 볼리바르 지부의 얼마되지 않은 청녀 중에서 비활동적인 청녀가 제법 있었습니다. 활동적인 청녀의 수가 얼마 안되어 어렵지 않았지만, 그들로부터 거리감과 무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쩐지 잘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녀 회장으로 봉사한지 얼마 안되어, 어느 날, 청녀인 노라가 제게 다가오더니 저를 껴안으며 제가 자기를 비롯하여 다른 청녀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껴안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 동안 제가 느꼈던 불안감은 자신감으로, 수줍음은 안도감으로, 걱정은 청녀들에 대한 진지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차츰차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들 각자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저는 비활동적인 청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 그들이 교회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노라는 청녀 표창 프로그램에 따른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복음에 대해 매우 강한 간증을 가졌으며, 교회 지도자들을 무조건 지지하였습니다. 노라 양, 청녀 표창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원리를 잘 실천해 주어 정말 고마워요! □



#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영”

**요** 셉 스미스 대관장이 사망한 직후에, 브리감 영 대관장은 꿈을 꾸었는데, 예언자가 꿈속에서 그를 방문하여 이런 지시를 하였다. “백성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여 항상 주님의 영을 간직하면 그것이 그들을 의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작고 조용한 소리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것이 왕국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교회 대관장의 가르침: 브리감 영*(1997년), 41쪽)

경전에서 이와 같은 지시를 찾아 볼 수 있다.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영, 곧 정의를 행하게 하며 겸손히 걷게 하며 공정하게 심판하게 하는 영을 신뢰하라. 이것이 나의 영이니라... 나의 영(은) ... 네 마음을 밝혀 주며 네 영육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리라.” (*교리와 성약* 11:12~13)

##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보내 주심

침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받는다. 그러나, 브리감 영 대관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성신의 은사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충실함” (*교회 대관장의 가르침: 브리감 영*, 69쪽)을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여야 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이러한 지침을 주었다. “(1)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2)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3) 겸손하고 열렬한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4)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구하십시오.” (*엔사인*, 1980년 5월호, 14쪽)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준비 상태가 갖추어져 있을 때 성신을 보내 주십니다. 우리는 파우스트 장로의 훈계를 따르며 주님의 지시를 신뢰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 “정의를 행하게 하며 겸손히 걷게 하며, 공정하게 심판하게 함”

일찍이 한 성전장은 성전을 방문한 청소년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난 후, 성신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합당할 경우, 성신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축복을 베푼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전장은 이 말을 마치자 한 청년이 흐느끼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어

니가 자신의 교회 활동을 반대하고 있으며 성전을 방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고 설명하였다. “저는 집을 떠난 이후 줄곧 금식을 하였습니다. 성전에 있으면 인도를 받고 어머니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실망을 안고 떠났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성전장님이 제게 해결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성신의 권능의 영향권으로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주일 후, 성전장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녀가 집에 돌아 왔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화를 냈다고 청년은 설명하였다. 편지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하였다. “이전에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반항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걸어가서 어머니의 어깨를 팔로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제가 성전에서 체험하였던 참으로 훌륭한 경험을 설명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고 제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해롤드 비리의 가르침*, 크라이드 제이 윌리엄스 편집 [1996년], 96~97)

성신은 청년에게 “정의를 행하게 하며 겸손히 걷게 하며 공정하게 심판하도록” 인도하였다. 우리의 삶은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영을 신뢰해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 어떻게 하면 보다 간절한 방법으로 주님의 영을 간구할 수 있을까?
- 주님의 영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주실까? □







질의 응답

## 어떻게 우리 가정을 더욱 행복하고 영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가족이 염려됩니다. 제 남동생들을 교회에 가게 하기가 힘이 들고 언니는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더욱 행복하고 영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들의 대답

**당**신이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여러분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와드나 지부의 훌륭한 회원들과 가깝게 지내도록 하십시오. 세미나리에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교회의 청소년 활동 모임에 혼자서라도 참여하십시오. 일요일 교회에 가서 성찬을 취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자 형제들이나 여자 형제들이 그들과 무언가를 함께 하자고 설득하려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기가 쉽지 않을 때 옳다고 알고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좋은 모범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선한 선택을 하려는 시도에 있어서 독선적이거나 그들보다 우월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당신의 가족 안에서 좋은 자질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에 대하여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질 때면 부모님 앞에서라도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간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의 간증을 기르는 것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부모님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마해야 할 중요한 자질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당신이 좋은 모범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염려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오랫동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거나 자신을 기꺼이 변화시키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생이 걸리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당신이 앞으로 10년간을 복음대로 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면 당신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당신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사랑스럽고 존경 받는 사람으로, 당신 자신의 구원 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구세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두 배우는 좋은 모범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몫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몫을 하신다는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있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 가족의 다른 형제 자매, 교회 회원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선한 사람들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도 받게 될 것입니다.



## 독자들의 대답

금식 기도의 영으로 성전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더 큰 신앙심을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한번은 어머니와 제가 가족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간 일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 특히 5년 동안 교회에 비활동으로 있는 남동생을 위해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 와서 우리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때에, 남동생이 친구와 함께 복음 선교사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남동생은 친구를 침례 줄 수 있었으며, 지금은 둘 다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셀레스테 몽기, 19세,  
아르헨티나  
빌라 마르 지방부,  
로스 올모스 지부

저는 열 세 명의 자녀를 둔 말일성도 가정의 일원으로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14년 전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해가 갈수록 제 형제 자매들은 활동이 저조하게 되었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도 거의 보이지 않았거나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던 우리 가족은 제 여동생이 사고로 죽은 다음부터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족으로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활동이 저조했던 다섯 명의 제 남녀 형제들은 다시 교

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부모님에게나 서로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다툼도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매형이 가르치는 성전 준비 반에 참석하여 여동생이 사고를 당한 지 5개월 후에는 가족이 함께 현세와 영원을 위한 가족 인봉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위해 가족의 죽음 같은 그런 극적인 상황을 겪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을 행복한 처소로 만들기 위해 각자가 자기 몫을 다하려고 노력할 때 가족 간의 애정이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족의 화목을 위해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도 책임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중히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일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깊다면 가족은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강화하고, 서로 대화하며, 귀기울여 듣고, 사랑을 표현하며, 비판을 삼가 하고, 비밀을 지켜 주며, 인내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에데르 호세 라케만,  
브라질 소로카바 트루히요  
스테이크,  
파르테 오우로 피노 워드

선교사 시절에 저는 교회를 찾는 구도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특별한 답을 찾으려면 경전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에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매일 경전을 읽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더 영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영의 영향력은 우리 주위의 사

람들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아마도르 브룰리오 장로,  
트레스 후아레스,  
멕시코, 멕시코시티 북 선교부

제 아버지와 남 형제 한 명과 여 형제 한 명은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라 가끔 활동적인 우리 가족을 지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약속에 위안을 찾습니다. 축복사님께서 제가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총관리 역원들께서도 물론 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면 가정에서의 사랑과 화목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문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4쪽 참조)

저는 기도와 사랑과 물문경을 읽는 것이 가정 생활을 더 좋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발레리아 크리스티나  
데 소우사 페라스,  
브라질 올린다 파울리스타  
스테이크, 리오 도세 제1워드

우리는 가족 기도, 경전 읽기, 가정의 밤, 가족 평의회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단합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나타내고, 용서의 영을 보이며, 인내함으로써 가족의 단합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관계가 단번에 완전하게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매일 한 단계씩, 조금씩 앞으로



나감으로써 발전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베일르마니 마파팔란기 라푸 아호,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마키 스테이크,  
니파이(통가) 와드

저는 교회에 들어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 중 저 혼자만 회원이었고 아내는 다른 믿음에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둘은 침례를 받았으며, 아내와 세 번째 아이도 선교사 토론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축복들이 제가 금식 기도하며 성전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도 이와 같이 행하며 인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당신의 소망은 최소한 당신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할 때 허락될 수 있습니다.



호세 마르코스 가르시아,  
뉴저지 스코치 플레이즈 스테이크,  
뉴워크(스페인) 와드

기도, 경전 공부, 가족 활동 그리고 리야호나의 뜻깊은 기사를 읽음으로써 당신의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주님과도 화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가족이 여전히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 해 하지 마십시오. 매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설사 우리의 손길이 가족에게 미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세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

을 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가즈코 오이까와,  
일본, 모리오카 지방부,  
기다가미 지부

우리 가정에서 제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는 원리인, 기도와 금식의 원리를 믿는 제 신앙입니다. 당신의 기도에, 가족을 위한 당신의 소망이 들어 있는 가를 확인해 보고, 전능하신 권세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의 금식을 아시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희생은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참조)



로네일리네 마르티,  
베네수엘라 발렌시아 로스 사우 세스 스테이크,  
과카라 와드

가족이 교회에 대해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가족의 일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는 더욱 슬프기 마련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 자매가 제게 화를 낼 때, 필요하다면 다른 빵을 돌려 대면서라도 그들에게 인내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29 참조) 부모님이 계시

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부모가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이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게끔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인내심과 사랑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3~5; 고린도 전서 13:4~7 참조). 왜냐하면 발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 멜로우모, 16세  
인도 서 선교부  
과틀루프 지부

당신의 신권 지도자들로부터 권고를 받으십시오. 그 분들은 당신을 도우며,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부름을 받으신 분입니다. 항상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루이 에이 아크엔절,  
필리핀 아파리 지방부,  
랄로 지부

행복의 비밀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들어 있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입니다.

당신의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보이십시오. 비평하지 말고 그들의 견해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 개개인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침범함이 없이 그들에게 권유하



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의 간증을 전하고, 함께 경전을 읽도록 권유하십시오. 당신을 도와주시도록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희망은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활동적으로 돌아서고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돕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당신 속에는 위대하며 놀랍고도 훌륭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레마 마헬름,  
필리핀 산 카를로스 지방부,  
칼라트라바 지부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13장에서 권고한 바처럼 우리는 모든 면에서 복음대로 사는 모범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봉사와 인내의 행위는 가족에 대한 수천 가지 아름다운 말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베아트리스 엘레나 발레로 토브, 20세,  
콜롬비아 산타 마르타 지방부,  
알멘드로스

당신이 부모님과 정기적인 대화를 한다면 당신의 가정에 행복과 영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간증과 영적인 경험을 들려주도록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이며, 당신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모범을 보이는 게 됩니다. 교회와 회복된 복음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계십시오.

필요한 도움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사람이 내 앞에 이를진대 내가 저들의 연약함을 보이리라...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이다." (이디서 12:27)



클레멘테 비 다피아오엔,  
필리핀 산타 크루스 스테이크,  
필라 지부

저도 가족과의 힘든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저에게 구세주와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은 영원히 하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은 이생에서 단합되어야 한다고 일깨워 주십시오. 당신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면에서 당신의 가족이나 형제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바라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클라우디아 타니아 도민구에스 헤라다, 17세,  
멕시코, 멕시코시티 트랄판 스테이크  
트랄판 와드

어떤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는

길이 아닌 먼 길로 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엔 잘못을 깨닫고 의의 길을 재발견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사막에 있는 사람이 물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가, 생명 샘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가족에게 머물러서 영원히 영적인 간증을 해소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올바른 길을 안내하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4:10~14 참조) 때가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영향력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몬 제이 도움, 17세,  
스위스 베른 스테이크  
프라이버그 와드

여러분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시면 질의 응답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199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 And Answer,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편지 안에 여러분의 성명, 주소, 와드/지부와 스테이크/지방부의 명칭을 꼭 적어 보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보내 주십시오. 사진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질문: 경전은 험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대한 험담을 먼저 시작하거나 퍼뜨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 아름다운 바하마의 개척자들

재닛 토마스

사진 촬영: 일부를 제외하고 글쓴이 촬영



왼쪽: 에드워드 스미스, 나소 지부의 지부장이 아내 클라우디나와 함께 예배당 밖에서 포즈를 취했다. 위쪽: 나소 지부 회원들이 집회소 계단에 모여 있다.

바하마는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군도로 대서양 상의 아름다운 7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30여 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다. 나라마다의 고유색이 있다면, 이곳의 고유한 색은 분홍색일 것이다. 왜 분홍색이냐면, 뉴 프로비던스 아일랜드의 수도인 나소에 있는 관공서의 건물이 모두 분홍빛 치장 벽토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흰색으로 마무리되고 강렬한 핑셔와 부겐빌리아의 붉은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나소 거리의 건물들은 질푸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반짝거린다.

분홍색은 또한 이곳에서는 나는 소라 껍질의 안 색깔이기도 하다. 소라는 한때 이곳 주민들의 주식으로 먹기도 했던 것으로, 현재는 잘게 썰어 차우더(조개 잡탕)로

끓여 먹거나 기름을 듬뿍 넣고 튀겨내 튀김으로 먹기도 하는 큰 조개이다.

바하마는 영국인, 미국인, 아프리카인 등으로 혼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아이티인들이 들어 왔다. 공식어는 영어이지만, 아이티 출신 사람들은 아이티 프랑수어를 사용한다.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1979년에 바하마에 처음 도착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에게 비자가 거부되었다. 1985년이 될 때까지 복음 선교사들은 다시 그 곳에 들어 갈 수 없었다. 1997년 11월 20일에, 닐 에이 맥스웰 장로가 바하마를 복음 선교 지역으로 헌납했다. 현재 교회는 이 나라에 두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영어를 사용하는 나소 지부와 불어와 아이티 프랑수어를 사용하는 술저 로드 지부가 있다.

사진 촬영: 폴리아 토드



오른쪽: 앙토안과 레오나 페리에는 첫 번째 바하마인 지부장 및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다. 아래: 클레어런스 뉴리 이세는 유타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침례를 받아 교회 회원이 된 첫 번째 바하마인이다.



방문자들이 뉴 프로비던스 섬 솔저 로드 에 있는 아름다운 집회소에 들리면, 바하마 교회의 현대 개척자들을 만나게 된다. 바하마 내의 교회에서는 매해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가 수립되고 있다. 충실한 일 세대 회원들- 침례 받은 첫 번째 바하마인, 첫 번째 바하마인 지부장, 첫 번째 바하마인 선교사, 성전에서 첫 번째로 결혼한 바하마인 부부, 성전에서 인봉된 첫 번째 바하마인 가족 이들 모두를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아름다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 유타로 이끌린 마음

클레어런스 이 뉴리 이세는 침례 받아 교회 회원이 된 첫 번째 바하마인이다. 그는 19년 전 유타에서 학생으로 있었던 때에 교회에 가입했다. 그는 현재 공립 고등 학

교에서 기술과 과장으로 있다. 그는 매일 이른 새벽에 그의 차로 두 지부의 10대 청소년 대부분을 세미나리 새벽반에 데워다 주기 위해 세 번 이상 교회를 왕복한다. 그리고 그는 세미나리가 끝나기를 기다려 학생들을 집마다 데려다 주고 직장에 출근을 한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세미나리에 참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뉴리 형제의 특기는 목공업이다. 20년 전, 그는 국가 장학금을 받고 미국의 어느 학교든지 입학할 수 있는 특전을 받았다. 그때 일을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카탈로그를 살펴보고있었습니다. 기도한 끝에 유타 기술 대학을 선택했어요. 정부 관리는 제게 왜 유타를 택했냐고 물었어요. 물문들은 흑인을 좋아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유타에 있는 대학으로 가기로 결정했지요."

유타 기술 학교(현재는 유타 벨리 주립 대학)에서, 그는 자신의 친구가 된 몇몇





사진 촬영: 폴리아 토드

교회 회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룸메이트가 활동이 저조한 회원임을 알게 되었다. 뉴리 형제는 말일성도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서, 룸메이트를 깨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다. 물론, 그는 선교사에게 소개되었다.

뉴리 형제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저는 선교사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의 종교에 대해 토론을 하기 전에 답을 듣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알고 싶었어요. 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세상에 왜 예언자가 없는지?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 어디로 가셨는지?" 이 질문을 듣자 복음 선교사들은 함박 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이에 대한 대답을 하자, 뉴리 형제는 "이제 나는 이 교회가 참됨을 알겠어요."라고 말했다.

뉴리 형제가 바하마로 돌아 왔을 때, 떠나 있을 동안에 세워진 아주 조그마한 지부를 찾아냈다. 그 작은 지부는 집회소

를 짓기까지 가정에서, 전세 건물에서 모였다. 그는 수년간 충실하게 지내 왔고 결국엔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친구인 앙또아넷 러셀이 그에게 같이 교회 다닐 것을 부탁했다. 회원들의 사랑에 감명을 받은 그녀는 클레런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선교사들과 토론을 했다. 그녀는 "저는 우리가 모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선교사들이 저에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했을 때, 저는 그것이 참됨을 알 수 있었어요. 평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앙또아넷과 클레런스 뉴리는 1997년 3월에 올랜드 플로리다 성전에서 결혼을 했다. 다른 몇 바하마인 가족들이 성전에서 결혼 인봉을 했지만, 뉴리 부부가 그 가운데 성전에서 결혼한 첫번째 부부이다.

### 첫번째 봉사자

뉴리 형제가 유타에서 복음을 배우던 시기에, 앙또안과 레오나 페리에는 나소에 주재한 아이티 총영사인 알렉산더 폴에 의해 복음을 알게 되었다. 페리에 부부는 1978년에 교회에 가입했고 각각 첫번째 바하마인 지부장과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어, 그

직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다.

폴 형제 그 자신도 교회의 개종자였다. 총영사로 나소에 있던 동안, 그는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 탐문을 하고, 유타로 날아가, 그 곳에서 연차 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그 곳에서 배운 것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고, 바하마에 살고 있던 두 말일성도 가족, 맥콩 가족과 벨라드 가족을 소개 받게 되었다. 교회가 이 사람들 집에서 예배를 보고 있었다. 알렉산더 폴과 그의 가족은 복음을 배웠고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페리에 가족을 초대해 복음에 개종하게 했다.

바하마인으로 첫번째 복음 선교사로 부름 받은 사람은 카이트 딘이다. 그는 브리검 영-하와이 대학에 다니던 중에 교회에 가입했다. "저는 교회에 가입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저는 그 곳에 있는 동안 선교사를 두달 동안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선교사 토론을 듣고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영적인 확신을 갖고 난 후, 그는 1981년 12월 5일에 침례를 받았다. 3년 후, 딘 장로는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현재 딘 형제와 그의 아내인 위니는 세 자녀를 두고 있고 나소 지부의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위쪽: 마르코 도우핀과 시드니 노엘 잭퀴스, 두 명의 말일성도 젊은이와 바하마 교회의 미래의 지도자들 오른쪽: 윌라매 캠프와 클라우디아 스미스와 앙또아넷 뉴라 나소지부 청년 회장단



또 다른 부지런한 회원은 탈마 "존" 바스티안이다. 아이티에서 출생한 바스티안 형제는 그의 친구인 앙또안 페리에에게 복음을 소개 받았다. 교회 소책자 두 개를 읽은 후, 탈마는 친구에게 보다 많은 자료를 달라고 했다. 페리에 형제는 그에게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의 기이한 업적을 포함한 교회 책자 몇 가지를 주었다. 그는 책들을 아주 열심히 읽었다. 선교사들이 그를 찾아 왔을 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현재 솔저 로드 지부에서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 구름이 갈라짐

나소 지부의 충실한 회원 또 한 사람은 18년 전에 앙또안과 레오나 페리에의 초대로 모임에 나오면서 다니기 시작한 윌라매 캠프이다. 캠프 자매는 이렇게 기억한다. "레오나가 제게 마치 이 교회 회원처럼 보이는 데 이 교회에 잘 어울릴 거라고 말했어요."

캠프 자매는 첫번째 모임을 결코 잊지 못한다. 교사는 신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캠프 자매가 궁금히 여기던 것 가운데 하나였다.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한 몸이 아닌 서로 별개의 개체를 지니신 분들이며 목적에서 하나라는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하자, 윌라매는 "오랜 암흑의 구름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여태껏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부의 역사에서 캠프 자매에게 중요한 시기는 1986년에서 1988년 사이에 회원들이 집회소를 짓기 위해 힘을 합쳐 일한 때였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자선 바자, 케이크 판매, 세차 등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는 기금 모으기를 했어요. 신축 부지를 정리하고 잡초도 뽑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성장했으며,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년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캠프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최근에 교회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은 참으로 감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교회가 널리 퍼져 나가기를 고대합니다.”

#### 한 형사가 구도함

현재 나소 지부장인 에드워드 스미스는 자신이 교회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페리에 형제는 아이티 프랑스어 반을 개설했다. 경찰서의 형사로 있던 스미스 지부장은 그 수가 상당한 아이티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아이티 프랑스어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언어 강습반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마음으로 스미스 지부장은 교회 모임에 한번 참석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런데, 그는 모임 시간을 잘못 알았다. 그가 집회소에 왔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열고 의자를 가지

런히 정리할 때까지 그 주위를 한 시간 동안 배회했다.

“아주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하고 스미스 지부장은 회상했다. “저는 첫날부터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첫째 일요일에, 그는 기초 복음반을 참석했다. 그는 반에서 성경과 함께 또 다른 경전, 물문경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책을 한 권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선교사들은 기꺼이 그에게 한 권을 주었다.

교회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는 자신이 어느 새 동료들 안에 교회의 옹호자가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저도 제 간증의 깊이를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제가 직접 찾아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스미스 지부장은 한동안 기도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복음을 공부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어느 날 경전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따뜻한 느낌을 느꼈어요. 이 교회가 바로 제가 찾던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제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함께 하고 싶은 곳입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스미스 지부장은 친구인 클라우디나를 교회로 초대했다. 그녀

는 선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침례 받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결혼하고 4년 후에 성전에서 첫번째로 인봉된 바하마인 부부가 되었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나소 지부와 아이티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솔저 로드 지부의 회원들은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친구로부터의 압력을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태도로 이겨내고 있다. (이번 호의 낙원: 바하마 36쪽 참조)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배우는 가르침들을 이웃에게 전하고 있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면서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지내는 것은 바하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곳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섬에서 교회가 팽창하기를 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 그들은 진성한 개척자로 자신들의 삶을 그들의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있다. 그들의 얼굴에 비치는 복음 빛은 바하마의 모든 아름다움을 반영해 주는 빛이다. □



# 낙원: 바하마



리사 엠 그로버

사진 촬영: 재닛 토마스

**대**부분의 교회 청소년들은 세미나, 학교, 교회 부름, 가족 활동, 축제, 레크레이션, 직업, 자원 봉사 등으로 바쁘다. 이처럼 쉴 사이없이 돌아가는 청소년들의 모든 활동에서 벗어나,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좋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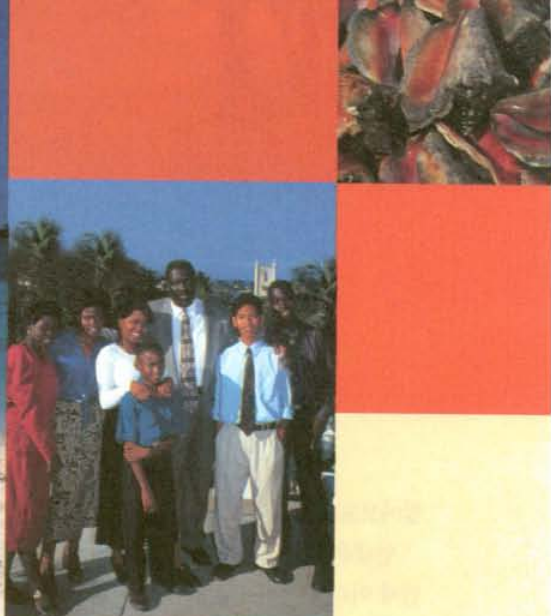
따뜻한 모래 사장에 파도가 넘실대고 야자수가 속삭이는 어느 열대의 섬을 마음에 그려본다. 뜨겁게 내려 쬐는 햇살을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열대의 햇살 아래 평온한 잠에 빠져 들며, 이처럼 좋은 곳에서 살아 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이 그저 고향이라고 부르는 바하마의 나소라는 곳이 바로 그 같은 낙원이다. 그 곳은 결코 춥지도 않고, 신선하고 풍부한 해산물이 넘쳐 난다. 푸른 수정처럼 맑은 물에서 돌고래들이 유유히 노닐곤 한다.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 말라 죽는 식물들이 온갖 색조의 분홍, 보라, 주황색 꽃들을 피우며, 부드러운 향기가 대기를 진동시킨다. 어느 곳에서도나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하마의 청소년들은 아름다운 기후와 환경을 즐기지만, 그렇다고 일상 생활의 압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음악이나 음식이나 햇빛에서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화평은 복음 원리에 기초를 둔 삶에서 오는 것이다. 그들은 복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열망한다.

그 섬에 복음이 들어간 지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하마의 청소년들은 진정한 개척자들이다. 대개가 가족 가운데 유일한 교회 회원이거나 첫 번째로 개종한 회원이다.

### 마음속의 열망

안젤라 빌도는 수년 전에 가족과 함께 아이티에서 바하마로 이사 왔다. 그로 인해 많은 변화가 찾아 왔다.

영어를 배워야 하는 것이 그중 하나였는데, 자라나면서 아이티 프랑스어만을 사용해 온 그녀에게는 그것이 큰 어려움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친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후원하는 무료 영어 교실에 나오도록 권유했다. 안젤라는 그 초청을 기꺼이 수락했다.

안젤라는 그때의 일을 돌이켜 보았다. "저는 영어 교실에서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물문경을 주었고, 나중에는 저에게 그 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물문경을 읽고 아주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자, 그들은 제가 느낀

바로 그것이 영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젤라는 선교사들과 자신의 느낌을 나눈 직후부터, 선교사 토론을 배우기 시작했고 곧 침례를 받았다. 수주일이 지난 후, 안젤라의 어린 여동생인 안넷도 침례를 받았다. 이 두 자매는 서로 복음에 대해 보다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왔고 나머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그것을 함께 나눴다.

안넷이 말했다. "제 친구들 중에는 혼란스러워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물문경과 그 속에 나오는 니파이일서를 보고는 '그래, 이것이 너의 창세기이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는 창세기이고 니파이는 니파이라고 말하며, 그 둘을 다 믿는다고 말했어요."

안젤라와 안넷이 겪은 어려움은 단지 물문경에 대한 오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유감스럽게도, 바하마에서 교회는 여전히 너무나 작은 존재였기 때문에, 교회의 신념과 관습에 관한 수많은 오해가 있었다. 사실, 그러한 오해로 야기된 사회적 압력이었기 때문에, 안넷은 언니가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과연 좋은 생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안젤라는 자신의 여동생을 설득하여 계속해서 물문경을 읽고 스스로

안넷과 안젤라 빌도는, (왼쪽) 안젤라가 영어 교실에서 선교사에게 소개를 받아 교회에 가입했다. 물문경을 읽은 후, 안넷은 "나는 내 마음은 깊은 곳에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내 마음속의 소망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스미스 지부장과 (위쪽) 다른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이 새벽반 세미나리 교실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알아보도록 했다.

안넷은 이렇게 말했다. “모사아시아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관해 적혀 있어요. 제게 그 말씀이 와 닿았어요. 계속해서 소망에 관한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교회를 가입하고자 하는 제 마음의 소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 가족의 즐거움

안젤라와 안넷처럼, 마르코 도우핀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누구와도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것을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마르코는 그 나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 농구를 좋아하고 쉽게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그에게 남과 다른 점이 있다. 그가 지도자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친구와 가족에게 올바르게 희망을 주리라 생각되는 것들을 소개했다. 그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그들 개개인이 편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법을 알고 있다. 수년 전에 그가 선교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서 자신이 갖고 싶어하던 특별한 무엇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는 당시 일을 회상했다. “제가 선교사들에게 재림에 대해 배운 것이 기억납니다. 너무도 좋았어요.”

그는 곧 침례 받을 준비를 했고, 그의 동생 데릭 또한 준비가 되었다. 어린 여동생인 산드라가 그 뒤를 이었다. 막내 여동생인 티나는 당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침례를 받지 못했지만, 그 후 침례를 받았다.

하지만, 마르코의 누나인 로스넬은 교회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때 저는 교회가 참되지 않다고 믿고 있었어요.”라고 로스넬이 말했다.

그러나, 마르코의 간곡한 부탁에, 로스넬은 선교사를 계속해서 만났고, 침례를 받으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그 생각을 물리친 것도 아니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하고 마르코는 말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오후, 로스넬이 물문경을 읽던 중에, 엘마 이세에 관해 읽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삶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그러는 가운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다.

“마르코가 제게 그것은 영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라고 로스넬이 말했다. “저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개심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침례 받은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우핀 가족의 할머니는 교회 회원이 아니며, 월요일 저녁에는 자주 일터로 가야 한다. 따라서, 마르코와 로스넬은 게임과 노래와 기도와 공과가 있는 가정의 밤을 갖는다. 때로, 선교사들을 초대하기도 한다.

자신들의 활동과 교회에서의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도우핀 형제들은 교회 활동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교회에 가입한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라고 마르

코는 말한다. “우리 가정에 영을 동반할 때, 우리는 서로 보다 더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우리는 더욱 좋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 “하얀” 성탄절

약 4년 전에 라바스토 가족이 교회에 가입했을 때,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다. 필리핀에서 바하마로 이주 한 후, 그들의 아빠인 아들포가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가정의 밤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치와 로셀은 매일같이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그들 가족은 다 함께 경전을 읽는다. 장녀인 리나는 현재 브리검 영 대학의 학생이다.

가족이 복음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작년에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가족은 휴가철을 이용하여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가족 인봉 의식을 가졌다.

“제가 성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좋았습니다.”라고 아치가 말했다. “저는 언니들이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참으로 행복했고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올랜도에서 가족들은 리나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물론 그녀를 보내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녀가 멀리 유타로 가도 평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언제나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



죽에게 흰옷에 새까만 머리 곁이 너무도 잘 어울린다고 말해 주었습니다.”라고 로셀이 말했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성전 에어컨의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제 마음에서는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그 곳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 강한 간증

바하마의 청소년들은 비록 많지 않지만, 강한 헌신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 그들은 복음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관해 할 말이 많다. 장미반 반원이면서 세미나리반 반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부드러운 목소리의 낸시 바우가 있다. 켈포드 진은 어머니께 매일 밤 자신과 함께 경전을 공부할 것을 일깨워 준다. 디. 디. 윌슨은 플로리다로 가는 수학 여행 길에 경전과 일지를 가지고 갔다. 왜냐하면, 단 하루도 경전을 읽고 기록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하마에서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너무 적고 또한 서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지도자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다. 그들은 어느 날 자그마한 한두 개의 지부가 아니라 크고 활동적인 여러 와드가 섬을 가득 메우기를 바라고 있다. 바하마에서의 교회 역사가 써어진다면, 이들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쌓을 수 있는 기초를 놓은 개척자로 불리울 것이다. 현재,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며, 자신들이 처한 위치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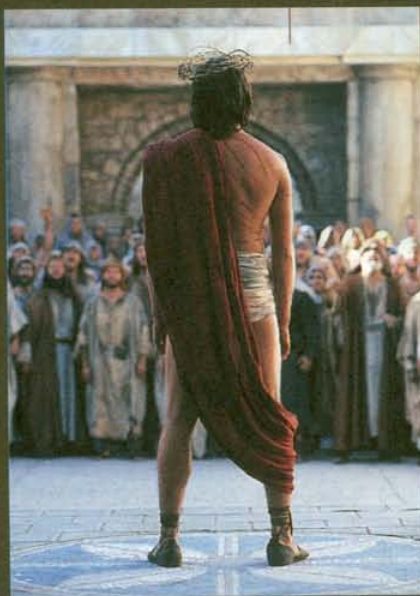
그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조국을 사랑하지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복음이 함께 한다면, 어디라도 천국임을 알고 있다. □

교회 모든 지역에 있는 청년들처럼, 바하마의 어린 소녀들은 윌라메 캠프 같은 그들의 지도자를 사랑한다. 디. 디. 윌슨과 그들의 어머니 엘라 윌킨(아래)은 다정한 친구 사이이다.





# 승리



교회 필름, 이 목적을 위해 태어남의 한 장면

## 익명

저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축복은 언제나 제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종종 제가 저의 가장 큰 약점을 다른 사람의 가장 큰 장점과 대조했습니다. 저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었으나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저는 특별히 힘든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대하는 적들은 제가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다고 느끼는 여러 면에서 제가 느끼기에 놀라운 성공을 하고 있던 반 친구들이었습니다. 좌절과 낙담으로 저는 친구들을 피해 방향하다가 후미진 학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싸움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목문경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니파이일서 19장 9절의 말씀에 다다랐습니다. "세상은 저들의 죄로 인하여

주를 값없이 여기어 주를 채찍질할 것임에, 주께서는 이를 참으실 것이요, 주를 매로 칠 것임에 이를 또한 참으시리라. 참으로 사람들이 주께 침을 뱉었으나 주께서는 이를 참으실 것이니, 오로지 인간들을 향하신 사랑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으로 견디시리라."

성신의 영이 제게 임하여 저의 전신을 이해로 채워 주었습니다. 성구 하나가 그때만큼 제게 큰 의미를 주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더 많은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의 거부가 자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거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거나, 옳은 일을 행하는 데 저지하도록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후미진 복도를 떠나, 세상이 아무리 저를 핍박하거나, 핍박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강화시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에게 큰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자신을 좋게 생각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시도해 본다. 이 제안들을 시도할 때 나쁜 감정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 목표 설정

인생은 목표를 향해 일해 나갈 때 더욱 흥미 진진한 것이 된다.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할 때 다음의 원리들을 기억한다.

- 목표가 너무 높아서 달성하기 불가능한 것이 아닌 현실적인 것이 되도록 한다. 몇 가지 작은 목표들을 정한다. 목표에 도달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해 더 좋게 느끼게 된다.

- 각 목표를 적어 둔다. 기억하라, 적혀 있지 않은 목표는 단지 바람일 뿐이다.

- 목표를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그 친구도 몇 가지의 목표를 정하도록 권유한다. 그렇게 하면 동기 유발도 될 수 있고 서로를 성원할 수 있다.

- 목표에 전념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것을 행한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 자신과 경쟁한다. 자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의 과업에 의존시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달성한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우수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결심한다.

- 목표를 하나님 아버지와 나눈다. 기도로 말씀드린다. 목표 달성을 위한 도움이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도움을 간구한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런 긍정적인 일들에 대해 여러분이 좋은 느낌을 갖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 여러분의 일상에 변화를 줌

권태, 단조로움, 틀에 박힌 일 등은 여러분의 삶을 따분하고 실망스런 것으로 보이게끔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낡은 습관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않는가?

- 다른 어떤 것을 시도해 본다. 여러분의 마을에서 전에 가 본 적이 없는 곳을 가 본다. 다른 라디오 방송을 듣는다. 다른 종류의 책을 읽는다. 새로운 친구와 무언가를 한다.

- 생산적인 일을 시도한다. 뭔가를 심는다. 요리를 배운다. 뭔가를 만든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

- 새로운 것을 배운다. 여러분에게 흥미 있는 주제를 하나 고른 다음,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그 주제에 관한 책이나 잡지 등을 읽는다. 그에 관련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 봉사한다. 여러분의 지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여러분은 잘 모를 것이다.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찾아내어 자원해서 돕는다. 아니면 여러분의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가서 왜드나 지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 본다.

## 자신을 객관적으로 봄

자신의 조그만 결점으로 괴로워하는가? 머리 모양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루 온종일 맘이 쓰이는가? 자기가 싫어하는 자신의 작은 부분들은 어쩌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지 않을 지도 모른다.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도록 한다.

-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돌린다.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전전 긍긍하는 대신, 주위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는다. 그들의 좋은 점을 지적해 준다.

-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 단지 대답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듣는다.

- 다음 사실을 기억한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여러분이 자신이 없어 하는 만큼 자신이 없을 것이다. 그들도 모두가 자신의 약점을 통감하고 있다. 그러니 한 순간이라도 자신의 약점이 다른 어떤 사람의 것보다 더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



# 잘못된 첫인상

오마 아브라함 아호메드 차베스

사진 촬영: 스티브 번터슨

그림: 캐리 헨리 (모험들이 촬영에 참여함)

제가 페루 리마 마란가 스테이크의 산 미구엘 와드의 어느 성찬식에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는 저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전에 교회 회원이 되셨지만, 교회에 다니지는 않으셨습니다.

불행히도 모임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인들을 많이 볼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국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모임을 사회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남의 눈을 끈다거나 당당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은 약간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고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모임이 끝날 무렵, 저는 저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사회하시는 분은 자녀를 가르칠 부모의 책임에 대해 위엄 있게 말씀했습니다. 그 분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저는 설명하기 힘든,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분이 감독님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침례를 받았고, 감독님과 저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감독님은 제게 저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분의 요청에 대답을 회피하려 했지만 그 분은 끈질기게 물려서 지 않고 저의 대답을 받아 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감독님의 방문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무척 놀랐습니다.

감독님은 바로 저의 집에 오셔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위층에 있으면서 온 마음을 다해 모든 일이 잘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두 분은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를 아래층으로 불렀

으며, 감독님과 저의 아버지는 다정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일요일, 아버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두 달 후 아버지는 감독님의 제1보좌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으셨습니다.

저의 첫인상이 크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감독님의 봉사로 저와 저의 가족은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으며 그 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받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



# 와 보라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두 제자는 그분의 말씀에 너무나 감동되어 무리를 떠나시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뒤따르는 것을 아신 그리스도께서 돌아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가로되, “어디 계시오나이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 보라” (요한복

음 1:38~39)

바야흐로 구세주의 지상의 성역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 수화되는 것 같습니다. 구세주의 첫번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 가에 관해 그분이 하신 답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분의 대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28) 내가 무엇을 하는 지,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지, 와 보라. 내게서 배우고 날 따르라. 이런 과정에서 내가 너희 기도 응답하고, 너희 영혼에 안식을 주리라.

저는 여러분의 짐을 지거나 야곱의 말처럼 “오직 성도를 위하여 마련된 것”인 “행복” (니파이이서 9:43)을 발견할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바탕을 둔 거룩한 성약을 맺고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것입니다. 비유적이든, 실제적이든,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그분의 신분을 받들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구세주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이 더 많은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나, 방법이나, 제반 요소에 집중하느라 너무 피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왕국의 가장 중요한 일을 제쳐 두고서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개인과 이 왕국의 주인이신 구세주와 하나

님과 영적인 관계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거룩한 품성을 “익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리스도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임을 우리가 믿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늘의 축복을 주장할 만한 신앙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께서 지니신 “성품의 우월성”과 가까이 “부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의존할 수 없다면, 요셉의 지적처럼 우리는 “영원히 구원의 빛”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변함없이 “진실이 많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언자의 말처럼, 그러한 지식이 “의심을 멀리하고 강력한 신앙을 낳게 할” 것입니다. (신앙 강화 [1985년], 41~42쪽)

## 짐을 내려놓음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러나 범법이나 범법의 유혹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짐을 들게 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을 주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 죄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가장 무거운 짐자입니다.

죄의 짐 아래에서 고투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성향” (신앙 강화, 42쪽)을 지니셨다는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오직 온유하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어둠





폭풍을 잠재우신 티드 해넘기





에서 벗어나 그분의 빛 가운데에 와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이사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 으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니다. (이사야 53:4~5; 모사이사서 14:4~5)

회개하고 변화할 용기를 구하는 분들에게, 저는 교회가 완벽한 사람을 격리시키기 위한 수도원이 아니라 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병고침을 원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병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더 많이 믿고 더 큰 신앙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회개를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구도자일 경우, 그것은 침례 받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러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그것이 더욱 열심히 성신의 속삭임과 약속으로 살며, “온전한 회개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파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길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늘 아래 다시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니파이서 31:20~21)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으면서, 가까이 팔을 벌려 우리를 안으시는 그분의 거룩한 포용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는 밖으로부터 오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영혼은 자신의 요새인 완전한 평화의 진정한 궁전 안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만큼 어려웠던 세상에 살았던 니파이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이 떠나고 작은 언덕들이 옮겨질 지라도 나의 인자함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네게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니파이삼서 22:10)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언덕과 산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일들이 일어나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분의 인자함과 평안은 우리 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 그분은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 (니파이일서 21:16)이라고 우리에게 상기

시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무한한 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려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 우리 영혼의 평안

주님께서는 아마도 전 우주에 충만할 만큼 충분한 위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무수한 위로의 말씀 중 어느 하나라도 들어갈 틈이 없는 괴로운 마음을 지닌 불행한 말일성도, 걱정에 휩싸인 말일성도, 우울한 말일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로서, 갯세마네와 골고다의 그 고통과 고뇌를 향해 가실 때조차도 제자들을 걱정한 구세주의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극도로 고통스런 바로 그 밤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충실한 말일성도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지만 그것은 구세주의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초대에 대해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주님의 자비하신 마음에 더 큰 슬픔을 드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한 사람의 부모로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제 아이가 심각한 곤경에 처했거나 불행하거나 불순종할 경우를 가정해 볼 때에, 그러한 때에 제 아이가 저의 도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제가 느끼거나 그 아이의 관심사가 제게는 중요하지 않다면, 제 보살핌이 잘못되었음을 느껴야 한다면, 정말이지 저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세주께서도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보살핌으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계명을 신뢰하지 않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으실 지 우리가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그분들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들은 우리를 돕고 보살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 도우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품성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걷는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덧이나 구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와서



나를 좇으라” (누가복음 18:22)고 말씀하실 때의 그 말씀은 어디에 모래 수렁이 있으며 어디에 가시가 있는지를 아시고, 미끄러운 경사 길이 있는 정상을 잘 오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시며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곧 길이십니다.

### 서로 치유함

일단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분이 약속해 주신 평안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치유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반드시 육신의 환자들을 돕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즉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준비는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찢기고 비틀린 영혼의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상처는 반드시 치료해야 하지만, 또 대단히 개인적인 것일 수 있으며, 어떤 것은 내면 깊숙히 상처를 입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항상 외부 세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권태의 종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몸소 모범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도 요청하신 바대로, 또한 쫓전에 울리는 평안과 위안의 간절한 열원대로, 여러분은 치유자, 보조자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도와 짐을 들어내어 가볍게 하고, 만사가 잘풀리게 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본의 아니게도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각자 자신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려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으며, 또한 상처입고 허탈해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만 해도 될만큼의 시간과 돈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주의 생애를 모범으로 삼게 되면, 어느 정도는 우리의 현재 능력보다 낮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의 동정 어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 또 한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절, 우리는 참으로 나약합니다.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길 원하며 타인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 실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79년에 우리는 유타 주 세인트 조지에서 디시 고등학교 제20

집을 들어주며, 가볍게 하며, 만사를 더 좋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병고치는 자로서, 조력자로서 참여하십시오.





회 동창회를 열었습니다. 졸업생의 현 주소를 찾아 동창회에 오도록 권유했습니다. 모든 일이 재미있지만 몹시도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편지, 즉 학창 시절에 다소 똥똥해서 인기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매우 활달해 보이는 한 젊은 여인이 보낸 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20회씩이나 된 동창회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자리는 예약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나는 지난 20년간을 우리들이 함께 했던 학창 시절의 그 고통스런 순간들을 잊으려고 애쓰면서 보냈어요. 이제 내가 그 고독감과 산산이 부서졌던 자존심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이 즈음에, 나는 여러분 모두를 볼 용기도 나지 않을뿐더러 또다시 그 모든 기억을 되살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군요. 죄송해요.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쩌면 30회 동창회에는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였으며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의 그녀와 비슷했던 친구들을 위해서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젊은 사람들에게 의도하셨던 그분의 대리인이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좀 더 보살피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집단에 완전히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나, 집단에서 소외되어 겨우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소속시키기 위해 충분히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친절할 말을 하거나, 잘 들어주거나, 간단한 대화를 나누거나, 시간을 내 주는 등의 몸짓을 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자신의 만족에만 연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안전 지대를 벗어나, 접촉하기 항상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호소합니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울 능력이 다할 것이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를 도우실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충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

을 먹이실 때 행하신 기적은 영원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뒤이어 일어난 사건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가졌던 경험에서도 교훈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다른 편으로 고깃배를 타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23) 날이 저문 밤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출발 때부터 바람이 사나웠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밤 3시에서 6시 사이의 어느 시간까지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몇 킬로미터밖에 가지 못했고, 성난 폭풍은 배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보시고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을 도우러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의 배로 직행하셨습니다. 극도의 위험한 순간에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파도 끝을 타고 그들을 향해 오는 이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고 무서워 소리쳤습니다. 그 다음 폭풍과 어둠 사이로 주의 안심시키는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27)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또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는 첫 단계가 흡사 두려움 같은 것에 휩싸이는 것일 수도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그렇습니다. 복음의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우리에게 구조와 안전의 근원이 제공되는 데도 우리의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그것으로부터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조란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보살핌과 돌봄을 묘사하기 위해 경전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으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한 구세주의 긴박한 노력을 설명하기에 가장 훌륭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로 와서 따르라고 우리를 부를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를 도우러 틀림없이 달려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로 와서 따르고 위로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전혀 망설이지 않아야 하는 데도 우리의 발걸음은 망설이며 그분에게로 향하지만, 그분의 발걸음은 결코 망설임 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독생자의 자비를 받아들일 충분한 신앙을 가지기를 기원합니다. □





그림: 해롤드 코핑, 사울 앞에서 연주하는 다윗

프로비던스 리토그래프사의 허가를 얻어 사용함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축 사울이 삼켜하여 낮고





“보라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여,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모사이야서 2:17) 전세계의 수많은 말일성도들이 남에게 봉사함으로써 오는 기쁨을 발견하고 있다. “토요일은 봉사하는 날,” 10쪽 및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14쪽 참조.

